

거제시, 야구장·배드민턴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거제·하청스포츠파크 부지 확장 총 예상사업비, 각 778억·662억 전국 최고 야구 전지훈련장 조성

거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족한 축구장과 야구장 면수 확충은 물론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테니스 전용코트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 유치와 더불어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246개소이나 대부분 공영 내 운동기구 등 마을체육시설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목표 면적인 5.73㎡에 미치지 못하는 3.4㎡에 불과하다. 또 거제시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 조건과 교통 접근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등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적격지로 평가받으나, 체육



거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장한다. /거제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2011년 조성 당시부터 부지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카드를 꺼냈다. 거제스포츠파크 인근부지 약 1만 500㎡를 매입해 축구장 4면(실외 3면, 실내 1면), 테니스 코트 9면(실외 5면, 실내 4면)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2020년에 준공한 하청스

포츠타운과 관련해 인근 부지 12만 3500여㎡를 매입, 야구경기장 2개소 및 실내 야구연습장 1개소, 숙소동 등을 신축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야구 전지훈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규격에 맞춘 야구경기장 2개소 조성 및 실내 야구연습장, 숙소동 등을 완비해 더 적극적으로 야구 전지훈련장 유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거제스포츠파크와 하청스포츠타운을 확장하는데 드는 총 예상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이 778억원, 하청스포츠타운이 662억원 정도다.

거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갈 예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전지훈련 특화 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100년 거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점진적인 개선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제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환급 행사 진행

여주시(시장 정기명)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신한·KB국민카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 이벤트 페이지 응모 후 결제, KB Pay 결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의 캐시백 혜택이 최대 5회, 만원까지 제공된다.

/여주(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완도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완도군은 오는 3월 26일까지 50일간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인구 정책' 공모 주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워케이션(workation·휴가지 원격 근무) 등 생활 인구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이다. '청년 정책' 공모 주제는 청년 일자리(취창업) 창출 방안, 교육, 주거, 문화생활 지원, 청년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민뿐만 아니라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 부산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활동을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제 금융중심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중심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호 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국제 금융중심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 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 등 지역기업 신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통합관제허브센터 12월 준공 목표 배터리 제품 표준화 인증 등 진행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앞둔

경주시가 미래차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주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과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시는 올해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기공센터 활성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등에 117억 원을 투입한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에 85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통합관제허브센터(441억)가 완공

되면 공유스테이션 실증·평가·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은 물론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사업 모델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탄소소재의 재활용·제품화를 위한 거점기관인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 14종을 구축해 초경량·고강도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기업 연구개발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도 32억 원을 들여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고도화를 지원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도, 설 연휴 응급환자 대응책 마련

연휴기간 1429개소서 진료

전라남도는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응급진료 종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 1429개소(병의원 401·보건기관 281·약국 747)에서 진료를 계속한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을 비롯한 44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운영한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닥터헬기도 정상 운영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거점병원(목포한국병원·성가톨릭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각 시군별 보건소 신속대응반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라남도가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응급진료 종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울산시, '조류 사파리' 명소 20개소 운영

명소 안내판·철새 해설판 설치

울산시는 울산으로 찾아온 철새 관광을 위해 '조류 사파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 ▲체험형과 체류형 탐조프로그램 운영 ▲철새 관광상품 홍보 사업으로 추진된다.

'조류 사파리'는 가족이나 소규모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명촌교하부, 대화강전망대, 삼호철새생태원 등 사파리 명소 20개소를 설치한다.

명소에는 명소 안내판, 철새 해설판이 설치된다. 명소 안내판은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크기로 하고, 안



울산시 중구 태화강 둔치 일대에서 5만여마리의 떼까마귀(갈까마귀)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뉴스시

내 정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해 나간다.

철새 해설판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탐조 가능한 새 정보와 철새를 구별할 수 있는 앱 소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 가동

대구시의사·약사회와 비상진료체계

대구광역시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을 운영하고 대구시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고, 병의원 683개소와 약국 923개소가 문을 연다.

특히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에는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비상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34개소 이외에도 동네의원 30개소, 9개 구·군 보건소가 문을 열어 경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및 운영시간을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포항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포항시는 오는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광장에서 설맞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사과, 배, 단감, 한과 등 제수용품 ▲시금치, 고구마, 버섯, 딸기, 꿀 등 신선제품 ▲떡국떡, 호랑이빵, 젓갈류 등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시식회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매일 2회씩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북구 죽도동에 소재한 '포항특산물판매장'에서도 오는 8일까지 30여 개의 품목을 10~20%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